

부모 지위 영향력 커지고 내부 격차 심각해진 청년 불평등, 완화 위한 근본대책 ‘발등의 불’

‘다차원적 특성’ 청년 불평등, 객관적 현실·주관적 인식 종합적으로 분석

이 연구는 청년이 마주한 불평등을 다룬 기존의 여러 단편적인 연구 결과를 종합하는 한편, 다차원적 특징을 지닌 청년과 불평등의 문제를 객관적 현실과 주관적 인식의 측면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고찰했다. 다차원적 불평등 분석이 객관적 상황을 분석하며 불평등 차원 각각의 밀접한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면, 불평등의 세습과 고착화 분석은 다차원적 불평등을 시간의 흐름으로 파악하고 청년 불평등의 동태적 특성에 관한 이해를 도왔다. 이에 따라 불평등의 다차원적 구조와 변화 양상의 전체적인 모습을 조망하는 것이 일정 부분 가능해졌다. 불평등에 대한 청년의 주관적 인식 분석은 기존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2차 분석을 실시하고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로 내용을 보완했다.

소득, 자산, 교육, 노동시장, 주거, 가족형성 등에서 청년 내부 불평등 심화

이전의 청년세대와 오늘날의 청년세대를 규정하는 불평등의 변화를 소득과 자산, 교육과 노동시장, 주거와 가족형성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면서, 이러한 불평등이 청년세대 내부의 다양한 집단에 어떻게 차별적으로 발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즉, 청년을 하나의 단일한 특성을 갖는 집단으로 묶기보다 여러 차원에서 내부 격차를 지닌 이질적이고 다양한 집단으로 인식하는 관점에서 연령대(20대와 30대), 성별, 소득, 학력, 청년이 속한 가구유형 등에 따른 내부 격차를 살펴보았다.

소득과 자산 불평등 현황과 관련하여, 한국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소득과 자산 불평등의 정도가 매우 심한 편이며, 소득과 자산의 상관관계 또한 깊었다. 특히 자산 불평등은 최근 더 심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청년세대 내부

의 소득과 자산 격차를 가구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소득 불평등은 혼자 사는 청년 사이에서 가장 컸고 청년부부 가구 사이에서는 가장 낮았다. 30대 부부가구의 상대적 소득은 맞벌이 등의 영향으로 여러 가구유형 중 가장 높았지만, 자녀가 있는 30대 부부가구의 소득은 혼자 사는 청년의 소득과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자녀가 있는 30대 청년부부 가구는 주택 구매 등의 영향으로 자산은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부채도 많아서 재무건전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자산 불평등의 정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의 불평등이 30대보다 훨씬 심각했다.

교육과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살펴보면, 부모의 소득수준은 예상대로 사교육, 학업성취도, 대학진학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가구소득이 대학진학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다. 2000년대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는데, 특히 1990년대생 청년의 노동력 공급이 늘어났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좋은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어 청년들은 노동시장에서 극심한 경쟁으로 내몰렸다. 그 가운데 대기업 취업자 중 20대 비율이 급감한 것이 두드러졌다. 20대의 실업률도 30대와 달리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 가운데 저학력 남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급증했으며, 20대 남성의 종사상 지위도 크게 불안정해졌다. 반면, 20대와 달리 30대의 비정규직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종합하면, 30대보다는 20대의 사회경제적 처지가, 그리고 20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과 학력이 낮은 계층의 사회경제적 처지가 최근으로 올수록 크게 나빠졌다.

주거와 가족형성의 불평등을 살펴보면, 저성장 경제가 지속되면서 1인 가구 급증, 월세 중심의 주택시장 변화,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부족 현상 등이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세대의 주거 불평등을 악화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20대 가구주의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졌으며, 주거비 부담도 크게 늘어났다. 특히 최근 20대 저소득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 상승이 더욱 두드러졌다. 30대 부부 가구의 자가 비율은 크게 상승했는데, 최근 서울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거 격차와 더불어 청년 내부의 자산 격차를 증폭시켰다. 한국은 지난 2002년에 이미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했는데, 201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합계출산율이 더욱 떨어졌다.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20대 혼인율의 지속적인 하락 현상과 더불어 그동안 완만하게 증가하던 30대 혼인율마저 2010년대 후반에 정체 내지 하락한 영향이 컸다. 20대의 결혼은 더욱 드문 현상이 되었고, 30대 남성은 소득수준이 높아야만 결혼할 가능성이 컸다. 한편, 소득 최상위계층과 최하위계층을 제외하면, 소득수준과 출산율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종합하면,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 한국사회에서 일어난 사회경제적 변화는 여러 차원에 걸친 불평등의 심화를 동반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조건의 변화는 과거의 청년보다 오늘날의 청년, 특히 현재 90년대생인 20대 청년에게 불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이 속한 가구유형에 따라 소득과 자산, 주거 불평등의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부모의 경제력은 예상대로 학업성취와 대학진학 등에 큰 영향을 끼쳤다. 최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와 불안정성 증가는 특히 20대 저학력 청년 남성에게 상대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주었다. 더욱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하며 주거비 부담이 커진 20대는 가족형성과 더욱 거리가 멀어졌고, 30대 남성은 경제력과 혼인율이 비례하는 것으로 확인돼 인구행동의 계층화 현상이 한층 뚜렷해졌다.

교육·노동시장, 2000년대 이후 부모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 점점 커져

불평등의 세습과 고착화 현상을 살펴볼 목적으로 먼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년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과 이것이 교육으로 드러나는 양상을 파악했다. 서울 소재 대학진학 비율은 부모의 직업이나 교육과 비교적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러한 경향은 특히 20대 여성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교육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소득획득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소득 최상위 그룹에 속하는 비율이 커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가족 배경의 영향력이 교육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진입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가족 배경의 영향력이 2000년대 이후 점점 커졌다는 사실이다. 경제자본의 직접적인 상속을 제외하면 부모의 지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현상은 교육을 매개로 해서 나타난다. 이는 학령기 이전의 양육 격차부터 시작되며, 대학진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회 사재기 등의 수단이 동원되어 노동시장 진출에 이르기까지 이어진다. 대출 임금 프리미엄이 2000년대 이후 조금씩 감소하기는 했지만, 한국의 교육 투자 연간 수익률은 여전히 높은 편이며 대학서열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은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경제적 불평등의 증가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더욱 부추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투자할 여력이 있는 중상위 계층에게 유리하다. 교육으로 부모 지위가 대물림되는 양상은 서열 상위권 대학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이에 따라 교육 기회의 불평등 양상도 바뀌었다.

세대 간 사회이동성, 2000년대 이후 감소로 불평등 고착화 경향 두드러져

한 걸음 더 나아가 불평등의 대물림 현상을 사회이동성이라는 렌즈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세대 간 상대적 사회이동성을 살펴보면,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1980년도 출생 코호트부터 커지기 시작해 1990년생에 이르러 극대화되었다.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에 따르면, 경제활동을 하는 20대 청년 가운데 무려 70% 정도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고, 30대는 그 절반으로 조사됐다. 20대 취업자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고려해도 이 수치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세대 간 교육의 절대적 이동성을 살펴보면, 30대의 상승 이동이 매우 높은 수준인 반면 20대의 상승 이동은 매우 낮았는데, 이는 20대 부모의 다수가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임을 반영한다. 이러한 경향은 세대 간 직업의 절대적 이동성에서는 매우 약하게 나타난다. 세대 내 사회이동성은 2000년대 이후 소득이동성의 저하 경향이 크게 두드러졌다. 또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소득이 낮은 그룹은 10년 후에도 소득의 증가가 거의 없지만, 초기 소득이 높은 그룹은 시간이 흐르면서 가파른 소득 증가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동성의 저하가 주로 저소득계층의 소득을 계속 제자리에 묶어두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한다. 소득과 마찬가지로 일자리 지위의 상승 가능성도 2000년대 이후 계속해서 낮아졌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노동시장의 분절화가 가속화된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첫 진입을 어떤 경로로 하느냐가 이후의 생애소득과 고용 지위를 결정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결국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 심화와 함께 교육에서의 경쟁체제와 기회 불평등을 촉진한다.

서울 청년 “한국 사회 불평등 중 자산이 가장 심각… 그다음은 소득, 주거”

불평등에 대한 청년의 인식과 태도는 무엇인지, 이러한 인식과 태도가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리고 불평등 인식이 세대 간 및 세대 내에서 어떤 차이를 드러내는지 살펴보았다.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은 한국사회 일반의 불평등 가운데 자산 불평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은 소득 불평등과 주거 불평등을 꼽았다. 집단 사이의 불평등은 상위 1%와 나머지 99% 사이의 불평등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했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현상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매우 강했다. 청년세대 내부의 불평등 인식을 묻는

항목도 청년들은 자산 불평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한국사회 일반의 불평등을 묻는 앞의 문항에서 고용 불평등의 심각성은 소득과 주거 불평등의 심각성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청년 사이의 불평등에서는 고용 불평등의 심각성이 소득과 주거 불평등의 심각성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 기회의 불평등 정도도 10명 중 6명은 불평등하다고 답했는데, 여성이 느끼는 불평등은 남성보다 심각했다. 교육 기회의 불평등 정도는 10명 중 4명이 불평등하다고 답했는데, 취업 기회의 불평등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이 느끼는 불평등이 남성보다 심각했다.

서울 청년 10명 중 9명 “부모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 현상이 심각하다”

불평등의 세습과 고착화 인식을 조사한 결과, 청년 10명 중 9명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 현상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이나 취업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청년도 다수였다. 계층이동성 인식도 매우 부정적이었다. 본인의 노력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이 4명 중 1명에 불과했고,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성은 이보다 더 부정적인 답변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공정성 인식 등을 묻는 항목에서 청년 10명 가운데 1~2명만이 우리사회에서 노력에 따른 공정한 대가가 제공된다고 생각했다. 부모의 지위보다 자신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10명 가운데 2명에 그쳤다. 우리사회에서 청년세대가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응답도 10명 중 1~2명에 지나지 않았다.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여성의 만족도가 남성보다 약간 낮았는데, 학력에 따른 격차는 매우 큰 편이었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비례적으로 높아졌는데, 이는 학력에 따른 삶의 조건 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서울 청년, 부모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불평등 심각성 인식은 낮아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이들의 불평등 인식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사회경제적 배경은 응답자가 15세 무렵일 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즉 가족 배경, 응답자 자신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응답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에 기초한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등 세 가지로 구분했다. 먼저 응답

자가 15세 무렵 부모의 직업과 교육수준을 바탕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고 이에 따라 청년의 불평등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한국사회 일반과 청년세대 내부의 불평등 가운데 소득, 자산, 교육, 고용, 주거 영역의 불평등 심각성 인식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가족형성 불평등의 심각성과 지난 10년 및 향후 10년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 인식에서는 가족 배경이 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자녀의 지위 상승 가능성 예측을 제외하면, 불평등의 세습과 고착화 인식에서는 부모의 지위가 상당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다음은 응답자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불평등 인식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한국사회 일반의 불평등, 청년세대 내부의 불평등, 불평등의 세습과 고착화 등 모든 영역에서 일관되고 뚜렷한 상관관계가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월평균 근로소득에 기초한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불평등 인식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한국사회 일반의 불평등 인식에서는 앞서 나타난 비교적 뚜렷한 상관관계의 양상이 드러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소득이나 자산 불평등의 심각성 인식은 소득 최하층보다 소득 중하위층에서 더욱 컸고, 주거 불평등 심각성 인식은 소득 최상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매우 크게 나타났다. 청년세대 내부의 불평등 인식에서도 소득 상위층으로 갈수록 심각성 인식이 낮아지는 경향은 발견되지만, 선형적인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 한편, 불평등의 세습과 고착화 인식에서는 흥미롭게도 부정적 인식이 가장 높았던 계층이 소득 최하층이 아니라 중간층이었다.

소득 격차, 재분배, 취업기회 불평등 측면에서 20대·30대 인식 격차 존재

한국종합사회조사(KGSS)를 이용하여 한국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세대 간 및 세대 내 인식 차이를 소득 격차와 재분배, 소득과 재산 불평등, 취업 및 교육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먼저 소득 격차에 대한 20대의 인식은 30대와 중장년층의 인식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낙관적이었다. 다시 말하면, 30대의 인식은 20대보다는 중장년층의 인식과 가까웠다. 소득 재분배에 대한 태도에서도 재분배를 강하게 지지하는 비율은 20대가 가장 낮았고, 30대와 중장년층의 지지 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 인식에서는 20대의 인식이 나머지 세대와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소득 불평등보다 더욱 심각하게 인식되는 재산 불평등이 포함되면서 나타난 효과로 추정할 수 있다. 취업 기회가 불평

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5년, 2009년, 2014년 세 번의 조사 모두에서 20대가 근소하게 높았는데, 20대와 30대의 격차가 가장 컸던 2014년도 조사에서 20대는 45.5%가 불평등하다고 답했고, 30대는 37.1%만 불평등하다고 답했다. 이는 2010년대 이후 노동시장에서 일어난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교육 기회가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4년도 조사에서 가장 낮았는데, 이때 세대 간의 격차는 매우 미미했다.

여성이 남성보다 소득 재분배에 우호적, 취업기회 불평등 인식 경향 높아

청년세대 내 불평등 인식의 차이를 비교적 최근인 2014년도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로 살펴보았다. 먼저 소득 격차 인식에서는 성별 격차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고, 소득에 따른 차이는 드러났는데,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소득 상위층이 오히려 소득 격차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 재분배 의견은 여성이 남성보다 재분배에 우호적이었고, 소득 최상위층의 재분배 찬성 의견이 소득 최하위층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 인식에서는 성별이나 소득에 따른 인식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취업 기회의 불평등은 여성이 남성보다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다소 높았고, 소득 하위층의 청년이 상위층의 청년보다 훨씬 더 취업 기회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직접적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같은 질문을 사용한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의 결과를 보면, 2014년도 조사 결과보다 취업 기회가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이 남녀 각각 18.3%, 26.0% 증가했다. 한편, 20대와 30대 사이의 연령대별 차이는 미미했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는 2010년대 후반 청년 고용 환경이 전반적으로 악화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교육 기회가 불평등하다는 응답 비율은 전반적으로 낮았지만, 교육 기회가 평등하다고 답한 사람은 여성보다 남성이 많았고, 소득 하위층보다 소득 상위층이 많았다.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에 따르면, 취업 기회의 불평등 인식과 마찬가지로 교육 기회의 불평등 인식 또한 2014년도 조사와 비교할 때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남성은 5.7%가 증가했고, 여성은 무려 24.3%나 증가했다.

본인·자녀세대 계층상승 가능성, 지난 10여년간 점점 더 비관적으로 변해

마지막으로, 통계청의 사회조사로 본인과 자녀의 계층상승 가능성 인식이 지난 10여년간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결과를 같은 질문을 사용한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 결과와도 비교해 보았다. 먼저 본인의 계층이동 가능성은 20대와 30대 모두 상향이동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꾸준히 줄어들었다. 특히 20대는 지난 10여년 사이 이 수치가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절대적인 수치는 30대와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상대적인 변화의 폭을 보면 20대의 비관적 인식이 30대보다 더 크게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자녀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 또한 지난 10여년간 20대와 30대 모두 부정적으로 변했다. 다만, 20대는 본인이나 자녀의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이 지난 10여년간 비교적 비슷한 양상을 보인 동조현상이 있었는데, 30대는 이와 달리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즉, 10여년 전 30대는 본인의 계층이동 가능성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지만(51.4%), 자녀의 계층이동 가능성에는 훨씬 덜 부정적이었는데(32.1%), 이 격차가 최근 매우 좁혀진 것이다. 이러한 수렴 현상이 시사하는 바는 최근 한국사회의 계층이동 인식이 매우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이것이 20대와 30대의 경제적 조건의 차이를 넘어 청년의 일반적인 인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년 불평등, 노동시장 개혁·사회보장 사각지대 해결 중심으로 완화 필요

청년세대가 마주한 불평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려면 개별적인 청년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사회보장 제도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세대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최근 전반적인 일자리의 부족 속에 청년이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로 급부상한 플랫폼 노동에도 여러 불안정 요소와 함께 기존 사회보장 제도가 제대로 포괄할 수 없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러한 당면 과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 문제를 눈을 돌려야 하는데, 이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와 성장 잠재력을 키워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구조개혁과 맞닿아 있다. 따라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구조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설정하면서 각종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기존 사회보장 정책의 틀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다양한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전체적인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로드맵의 작성이 필요하다. 이때 교육-고용-복지의 악순환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바꾸는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살리는 교육을 증진하고, 후자의 경로를 선택하더라도 양질의 고용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획일화된 삶의 경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돕고, 어떤 시점에서 어떤 인생 경로를 선택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이 보장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선순환은 사회이동성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을 완화해 기회와 결과의 과도한 불평등을 제어할 수 있다. 아울러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려면 현재 각각의 청년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함께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를 만드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